

伊 가상화폐거래소, 1855억원어치 해킹

비트그레일, 나노 가상화폐 1700만개 유출

이탈리아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1억 7000만 달러(약 1855억원)어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상화폐거래소 비트그레일(BitGrat)이 해킹공격을 당해 '나노(Nano)'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1700만개가 유출됐다. 이 화폐의 시장가치는 약 1억7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내부 조사 결과 허가받지 않은 거래로 인해 1700만개의 나노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명에는 해킹공격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면서, 나노 이외의 다른 가상화폐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6일 일본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가 580억엔에 달하는 가상통화 '넴(NEM·뉴이코노미부먼트)' 코인을 도난당한 지 약 보름 만에 일어났다. 이때문에 가상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또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노는 2015년에 생긴 가상화폐로 시장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며 일일 거래량은 5300만 달러 정도이다.

조재학 기자 jzha@

“풍력발전, 2019년 재생E 중 최대 비중”

美 EIA, 2년 내 수력발전량 추월...세제지원 일몰 따른 설비 확충 영향

풍력발전이 2019년에 재생에너지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9일 발표한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를 통해 2018~2019년에는 풍력 발전량이 미국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풍력발전의 증가세는 최근 유틸리티 규모와 풍력발전설비 건설 증가 추이와 관계가 깊다.

EIA는 미국 풍력발전 용량이 해당 기간 중

전년 대비 각각 9%, 8%가 증대해 수력발전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풍력발전 확대 배경에는 미국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신규 유틸리티 규모 발전용량 25GW 중 50%는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원인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의 일몰 기한이 조만간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

은 올해 8.3GW, 내년에는 8GW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발전량은 각각 257TWh, 281TWh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EIA는 유틸리티 규모 총 발전량 중 7.4%를 차지했던 수력발전이 같은 기간 6.5%, 6.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향후 2년간 예정된 신규 설비 구축이 없고, 발전량이 감소량과 지하수 유출량에 좌우됨에 따라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광국 기자 kimgg@

트럼프 美 대통령, 조세개혁 경제성과 과시

“취임 이래 총 240만개 새로운 일자리 생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대대적인 세계개편을 통한 경제성과를 재차 과시했다.

지난달 30일 첫 연두교사에서 세계개편을 통한 경제성과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또다시 조세개혁의 결실을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420만여 명의 미국노동자들이 이미 두둑한 보너스를 받거나 급여가 올랐다”며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감세법 덕분에 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예상보다 진도를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한 시간 전쯤 트윗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가짜뉴스 미디어들은 이를 다루지 않는다. 똑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쓰고 또 쓴다”라면서 불평을 쏟아냈다. 자신의 세계개편 업적을 언론들

이 다루지 않으니 자신이 직접 자화자찬하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 게 하등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미디어 신뢰도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첫 연두교사는 대대적인 세계개편을 비롯한 국정성과를 부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을 실행해 냈다”며 “우리의 대규모 감세는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안전하고 강력하며 자랑스러운 미국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래 제조업 20만개 일자리를 포함해 총 240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최저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조재학 기자

중,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부상

중국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과 국영 석유기업 Sinopec이 공동으로 발표한 '석유청사: 중국 석유산업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843만 b/d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미국(790만 b/d)을 능가했다.

수출국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120만 b/d로 가장 많았으며, 중동산 원유 수입량은 감소세를 보여 100만 b/d를 기록했다.

또 미국산 원유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연간 수입량은 1000만 배럴 이상으로 전망된다.

김광국 기자



러 여객기 모스크바 '추락'

러시아 여객기 안토노프(An)-148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동쪽 외곽의 도모데도보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객 71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 등이 전했다. 여객기 잔해들은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40km 떨어진 라렌스키 지역 스테파노프스코에 마을 별관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스테파노프스코에 마을 별관에서 An-148 추락 잔해를 수습하는 모습.

ENGLISH 영국 미국 말문을 여는 스토리로 배우는 영어회화!

Lesson 42 ▶ Party (4)

파티에는 지인들과의 대화와 초면인 사람들 간의 소개가 있죠.

A : Hello. Mama, Papa, you remember Rebecca. (엄마, 아빠 레베카 기억하시죠?)
B : Of course. How are you, Rebecca? (안녕하세요, 레베카)
C : Very good, thanks. (네 감사합니다.)
D : It's so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 반가워요.)
C : It's a pleasure to be here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요.)
D : This is Alice Goodman, an old friend. (이쪽은 엘리스 굿맨, 제 오랜 친구죠.)
She came all the way from Arizona to be with us tonight.
(오늘밤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아리조나에서 왔어요.)
C : Oh, wonderful. (좋으시겠어요.)
D : This is Rebecca Casey. (이쪽은 레베카 케이시아.)
C : Nice to meet you.(만나서 반가워요.)
D : Hello, Rebecca. (안녕하세요, 레베카)
I knew this guy when he was just a little boy. (난 이 녀석을 꼬맹이 때부터 봤어요.)
He liked girls even back then. (그때도 여자들을 봤었지.)
A : OK. We'd better go (이제 가보는게 좋겠어요.)
before they start telling stories about my childhood. (내 어린 시절 얘기 시작하시기전에.)

[Key Point] * 과거에 대한 회상 back there / back then 머릿속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back I knew this guy when he was just a little boy. He liked girls even back then. 알고 지낸 세월을 강조하고 싶다면? I have known this guy since he was just a little boy.

[주요 표현] * 소개받을 당시 첫 인사 It's a pleasure to meet you. meet 을 길게 Good to meet you. you를 길게, 혹은 too를 붙여서 too를 길게. 두 번째 만나면 meet 은 see 로 바꾸어 인사. It's good to see you again. good to see you. 초대된 사람의 인사 It's good to be here. 초대자의 인사 It's good to have you here. She came all the way from Arizona to be with us tonight. 먼 거리의 질감 all the way You drove all the way from Boston? Why do you have to go all the way to LA?

(자료 제공 : 테스트와이즈 시사영어학원 문영미 POWER SPEAKING (www.sisapeaking.com))

2018 일본은 지금...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양사는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여도 다수의 배터리를 조합하면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조정용, 주파수 변동 및 배전계통의 전압변동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축전지 시스템 실증을 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발전출력 약 1만kW, 배터리 1만대 도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제사용하는 배터리는 현재 하이브리드(HV)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사용되는 니켈수소배터리를 활용하며, 2030년도 이후에는 전기자동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에 이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의 레이메탈 등의 재료를 회수, 재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3호기 핵연료 장착 임박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규슈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사용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겐카이 원전 3호기(사가현 겐카이마치)에 대해 오는 16일 원자로 핵연료 장착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향후 작업과 사용전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3월 중순에서 하순에는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위는 지난해 9월, 겐카이 3호기의 재가동 수속 최종 단계인 사용전검사를 개시했으며, 올해 1월 하순에 설비 외관 등을 확인하는 초기단계 조사공정을 끝냈다.

현재 핵연료 장착 전에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 중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규슈전력은 이 검사를 이달 14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료장착 전 보안체계 등을 확인하는 규제위의 검사를 거쳐 실제 장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규슈전력은 겐카이 3호기에서 우란-플루토늄 혼합산화물(MOX)연료를 이용하는 '플루르말발전'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자로에 MOX연료를 포함하는 핵연료 193개를 수일에 걸쳐 장착할 예정이다.

겐카이 3호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발각된 고배제강소 등의 검사 데이터 조작 문제로 인해 당초 예정했던 1월 재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규슈전력은 올해 1월 하순에 겐카이 3호기의 조사를 끝내고, 안전성 확인 작업을 거쳐 재가동 수속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겐카이 4호기에 대해서는 5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FIT법 도입 전까지 계통접속 못한 사업 추정치 공개

스마트재팬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말까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로 설비 인정을 받은 사업 가운데 개정 FIT법 도입 전까지 전력회사와 계통접속계약을 맺지 못해 좌절된 건수의 추정치를 발표했다.

추정치는 2018년 1월 열린 '재생가능에너지 대량도입·차세대 전력네트워크 소위원회'에서 공개된 것으로, 실효된 안전수는 27만건, 1610만kW에 달했다.

경제산업성은 2017년 4월에 확정 실효된 추정치를 45.6만건, 2766만kW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그보다 대폭 하향수정된 것이다.

실효된 안전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비주력용 태양광발전이다.

실효 안전수는 26만건, 1463만kW다. 2017년 3월 말까지의 비주력용 태양광발전 확정용량은 7905만kW였다. 단순히 확정용량에서 실효 안전수를 빼면 비주력용 태양발전은 약 6400만kW다.

단,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인정을 취득한 안전은 접속 계약에 9개월간 유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표된 실효 안전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